

2학년 4반 4월 독서토론

조이름 :

조장 : 최다민

조원 : 박예진, 김혜원, 김진서

도서명	세상을 바꾼 미술
이 책을 선택하게 된 이유	
<p>조원들의 진로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니 '예술'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를 찾게 되었고 예술 관련 책을 찾아보니 세상을 바꾼 미술 가 간단했던 책이었고 역사와 관련된 책에서 선택하게 되었다.</p>	
독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구절과 그 이유	
<p>진서: "투브 미술가는 미술계에 혁명을 가져왔다" 투브 미술이 없었다면 미술이 이정도 발전하지 못했을 것 같다.</p> <p>예진: "당시 피카소에게 예술은 미적 창조물이라기보다 인간의 투쟁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이었던 것이다" 피카소는 사랑한 후여야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사랑받은 작가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피카소의 전의력에서 공산당에 가입했었던 것에서 놀람을 느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랑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예술을 투쟁 의지 ^{원인}으로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것 양키외에서 인상이 깊게 남았던 구절이었던 것 같다.</p> <p>혜원: "쿠르베는 자신이 숨쉬고 있는 세상에서 본 모습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예술가의 역할이자 임무라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" 자아론 미술을 가진 설모나 한가로이 누는 농부들을 그리며 평화로움과 편안함을 표현하던 그 당시 화가들과는 달리 쿠르베는 압축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림에 담으면서 자기만의 느낌을 살리며 그림을 그려나갔기 때문이다.</p> <p>다민: "루이 브세가 왕위에도 불구하고 마리 드 메디치는 왕보다 더 비참하고 권력이 있게 표현되었으며 왕과 같은 수명으로 위치한다. 이는 마리 드 메디치가 적어도 루이 브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." 르네상스 시대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는 권위가 약하고 연약한 이미지였는데 마리 드 메디치가 루이 브세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은 루이 브세 만큼 권력이 있었고 존경받았다는 것 같아서 감탄했고 멋있다고 느꼈다.</p>	

도서 중 가장 와 닿지 않았던 부분(글쓴이의 생각과 달랐던 구절)과 그 이유

대1. "하지만 플라우스 2세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은 거대한 규모를 자랑할 수 없었을 것이고
건축 예술 작품들도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다"

정 # 물론 플라우스 2세가 없었다면 성 베드로 성당도 건축 예술 작품들도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플라우스 2세의 사치와
팽석들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. 플라우스 2세는 백성들의 고통과 예술 작품을 맛바꿨다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예술작품을
만들기 위해 희생했던 사람들을 잊어선 안 되는 것 같다.

진서 "나체는 관람자들의 시선 속에 수치심이 들어있는 대상이라면, 누드는 예술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이미지이다"

나는 누드나 나체나 똑같이 받아보고 있는 상태인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둘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든다.

예진 고통을 예술로 승화한다는 말이 나에게도 와닿지 않았던 것 같다 왜냐하면 고통을 승화 시키기까지
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지 모르니 그런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.

혜원: "예술의 가장 아름다운 빛은 근대인의 삶 속에 존재했다"

그러부터 예술이 이국에서 왔는데 이 문장은 과거 예술 작품과 예술가를 아름답게 한다고 여기는
속 뜻이 존재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.

전체적으로 느낀 점

진서: 내가 몰랐던 예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새로운 지식들을 잘 알 수 있어서 좋았고, 책에서 읽고 나서 궁금했던 내용들을 인터넷으로 조금씩 더 찾아보면서 예술에 대해 더 흥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.

예진: 미술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고 있던 부분들을 하나하나 차췌 갈 수 있어서 좋았고, 내가 모르면 사람들이 알 수 있어서 좋았다. 특히 피카소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던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뒷받침 해주는 것들이 있어서 역시 더 인상이 깊었다.

다민: 평소 미술작품들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미술관에 자주 가는 편인데, 항상 작품들만 보다가 이 책을 통해 작품 뒤 이야기들을 알게되면서 작품 역사와 연관 시키면서 작품을 보니 왜 작가가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이 작품을 만들 수 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알게되면서 읽는 내내 즐거웠다.

예진: 그림과 현대미술, 조각상 등 다양한 예술에 대한 역사적 진실이 잘 서술되어 있어 예술과 함께 그에 따르는 과거의 상황이나 정치를 알 수 있어서 좋았다. 당시 화가의 상황이나 태도를 보며 왜 그런 그림을 그렸는지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고 어렵게만 생각했던 예술에 대해 좀 더 가까이 친거 같다.

느낀 점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다짐

진서: 이책에서 나왔던 사람들처럼 불편한 것을 개선해서 세상을 바꿔낸 것처럼 나도 앞으로는 불편한게 있으면 그냥 대항 남는게 아니라 가끔 수첩에다 생각나는 내용을 적고 좋은 아이디어를 모은 다음에 이런 책에 넣을 수 있을 만큼 대단한 것을 발명해 낼 수 있으면 좋겠다.

예진: 미술이 우리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, 내가 어떤 디자인을 그려나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나는 이 책을 읽고서 내 디자인도 사람들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.
그리고 내가 그려나갈 것들로 도움이 되고 싶다.

대진: 작품 뒤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, 작품 속에 시대상현실이 들어나는 것처럼 나도 미래 인제나 내 작품 속에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들을, 현실에 ~~대항~~ 대해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라도 나의 이야기들을 일러스트 속에 그려볼 것이다.

예진: 여심을 단속한 여가활동이 아니라 호소력있고 사람들과 공감하며 교감을 주는 매개체를 해주는 역할이다.
나도 내가 앞으로 그려나갈 웹툰이나 일러스트로 사람들과 소통하며 교감을 주고싶다

조장이 하고 싶은 질문 & 총평

1. 예술의 가장 아름다운 빛은 근대인의 삶 속에 존재했다는 문장이 왜 과거 예술 작품과 예술가를 아름답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궁금하다.

- 근대인의 삶이 아름답지 않은 것 같기 때문.

Q. 조원들 모두가 같은 진로가 아니기도 하고 해서 어떤 책을 선정해야 가장 좋을까 고민을 많이했는데 결과적으로 관심을 책을 고른 것 같아서 좋아하고, 독후감 쓰는 것도 조원 아이들에게 독후감을 원려 단라고 할 때 형조적으로 나와서 보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.